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 제: 교회의 기도
일 정: 8.15(목) ~ 16(금)
장 소: 연못이 있는 펜션(가평)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7/14)	다음 주(7/21)	7/28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승재 전도사	오숙현 성도	이윤경 성도
	주일오후예배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성경 봉독		이윤경 성도	편재천 성도	하유미 성도
식사 준비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장윤경
정리		이강진 순	이윤경 순	김윤기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28호 2019.7.14.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8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7장, 찬송가 268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19편 129-144절	이	윤	경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61장 1-3절	김	윤	기 목사
[왕의 선포]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397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승	재 전도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 오후 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이
기 도:	하유미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 5장
합심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주일
찬 송:	다 같이
본 문:	시 50편 22-23절
설 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기 도 회: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 1시 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 1시 00분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주일 - 성찬에 관하여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功效)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 말씀 요약: 사 61:1-3, 왕의 선포

구별하여 세운 왕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 새우실 때 행하시던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리고 왕을 세우실 때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여 구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이 임한 선례가 다윗 때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왕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1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해

이와 같은 소식을 잘 드러내어주는 날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2절). 예수님은 구원의 소식과 심판의 날을 전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은혜의 해는 희년을 바라보게 합니다. 희년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독특한 제도로 7년 마다 있는 안식년을 일곱 번 보내고 50번째 해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땅에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에덴을 엿보는 듯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희년을 지키기 앞서 속죄일을 지킴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치르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날이 오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에 다시 오실 날에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은 (1)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기간이요, (2)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며, (3)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보존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저 흘러 보내는 기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힘써 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나무로 심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일을 이루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3절).